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 Temperament, Mothering Daily Hassles and
Social Adjustment i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박사과정 김민희
부교수 문혁준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 : Kim, Minhee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J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 temperament, mothering daily hassles,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254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The mothers of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measures of child temperament and mothering daily hassles. The social adjustment in daycare was assessed through the rating provided by the children's teachers. Correlations and regressions were used for the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bility, activity and soothability were related to social adjustment that attention-span, soothability, emotionality and activity were related to the mothering daily hassles that mothering daily hassles by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social competence and positively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at sociability and activity were useful to predict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주제어(Key Words): 기질(temperament), 양육스트레스(daily hassles),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린 유아들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증가는 1996년 403,001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636,000명, 2006년 1,252,877명으로 대폭 늘어났다(여성가족부 통계자료, 2006). 이는 점점 가정 밖 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수 감소와 어머니의 취업 등의 문제와 함께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어 어머니들이 타인 양육이나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적응에 관심이 높아지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적응이란 성장하면서 많은 환경을 접하게 되며 그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응하도록 요구되는 유아의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뜻한다(유우영, 이숙, 1998). 가정을 떠나 유아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인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갖게 되는 긍정적 적응 경험은 후의 다른 사회에서의 적응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는 유아의 사회적 적응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또래간의 적응, 자아상태, 하루일과의 적응, 전반적인 적응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즉, 유아의 사회적 적응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유아의 개인적 성숙, 교사나 유아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적응 능력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최초로 접하는 환경인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사회적 적응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알아보았으며, 부정적 측면에서는 불안-위축행동과 같은 내면적 부적응행동과 분노-공격행동과 같은 외현적 부적응행동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그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첫째, 유아의 성, 연령, 성격, 기질과 같은 유아 특성의 영향, 둘째, 부모의 학력, 연령, 직업,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과 같은 부모를 비롯한 가정환경요인의 영향, 셋째, 가정과 학교의 교육과정, 유아교육프로그램의 질, 교사수준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적 영향을 들 수 있다(유우영, 이숙, 1998).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환경인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유아자신의 특성과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오기 이전의 환경인 가정에서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핵가족화와 같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유아기의

자녀 양육이 부모에게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타고난 기질특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도 연결되므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 자신의 특성인 기질과 아직 어머니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유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동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서지대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최초의 사회적 환경인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적응과 그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기질이란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유아가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차원 또는 경향성이며 유아가 환경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다(Goldsmith, Buss, Plomin, Rothbart, Thomas, Chess, Hinde, & McCall, 1987). Coplan, Bowker와 Cooper(2003)는 유아의 특성인 기질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양육스트레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질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관계를 탐구한 결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주의한 기질이 유아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기질은 유아들의 도전적 행동을 유발하는 특성과 관계하여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질과 같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은 본질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방향으로 작용하며 보다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들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쉽다(Coplan *et al.*, 2003). 즉,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부모를 화나게 하며, 이는 유아자신의 부정적 표현이 더욱 강화되어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적응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최영희, 1990). Oestberg와 Hagekull(2000)은 주된 생활사건, 사회적지지 그리고 가사노동량을 통제한 경로분석 모델에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까다로운 유아기질의 직접적 효과를 보고하였는데, 부정적 정서는 특히 도전적인 유아행동과 관계하여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으나 반대로 수줍음과 같은 기질 특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덜 유발하였다. 김현미와 도현심(2004) 역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같은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유아의 적응성, 기분, 활동성 기질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상관을 보이며(조용신, 정영숙, 2000),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혜순, 2003). 종합해 보면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과 활동성, 정서성, 생리적 규칙성과 같은 기질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아들은 저마다 타고난 특성을 가지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 발달한다.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 소개된 'goodness of fit'의 맥락에서 유아들의 주변 환경이 적합한 환경인가 아닌가는 유아들의 사회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들은 각각의 유아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높여주어야 함이 강조된다. 사회생태학자들 또한 유아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효과를 제기하였으며, 유아들의 심리적 기능은 그들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게 경험된 스트레스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Kliewer와 Kung(1998)에 의하면 유아들은 부모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된 인생 위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보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유아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스트레스를 경험한 유아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은 유아들보다 더 많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한 유아들이 내적인 문제인 우울증, 과민, 사회적 회피와 같은 내면적인 문제행동을 나타내거나 과다행동, 공격성, 불순종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wen, Work, Wyman, Parker, Wannan, & Gribble, 1992). 특히 이러한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이외의 스트레스를 통제했을 때 보다 더 강력하게 유아들의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보고 되었다(Creasey & Reese, 1996).

Crnic과 Greenberg(1990)는 유아들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유형을 두 가지로 묘사하였다. 즉, 첫 번째는 매일의 반복되는 유아 생활과 관련된 양육 과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예를 들면 학교 준비시키기, 형제와의 싸움, 가사일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두 번째는 부모가 바라지 않는 유아의 도전적인 행동들과 관련되는데, 버릇없는 유아들의 행동이나 다루기 어려운 유아들의 행동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 됨으로 인한 양육과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유아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들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현미와 도현심(2004)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은 사회적 능력이 낮아 부적응이 높아지며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결과적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을 초래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유아들이 사회적 적응 능력이 높았으며(문혜련, 1999),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차이를 본 김혜진(2003)의 연구 결과에서도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의미 있는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유우영과 이숙(1998)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양육스트레스 원인을 감소시키거나 적당한 정도까지 해소시킬 방법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유아기 초기에 어머니와의 관계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환경이므로 가정 밖에서 유아들이 접하는 환경에서의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안선희, 2002; 이진숙, 2004; 한민경, 2002; 홍계옥, 2001).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경우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발달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혜진, 2003; 문혜련, 1999; 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즉,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적응의 예측 변인이며(김현미, 도현심, 2004; 김혜진, 2003; 문혜련, 1999; 유우영, 이숙, 1998), 이러한 스트레스는 유아자신의 특성과 상호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쳐 그 효과가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oplan *et al.*, 2003).

또한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기질과의 관련성을 제기하였으며, 특별히 까다로운 기질특성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강민정, 1997; 서수경, 1993; 정영미, 1996; 정현희, 최경순, 2001; 홍계옥, 2001; Thomas & Chess, 1997). 수줍음이나 억제와 같은 기질은 전형적으로 내적인 문제행동과 관계되며, 통제에 대한 반항과 같은 기질은 외적인 문제행동과 관계되고, 부정적 정서는 둘 다의 문제행동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Rothbart & Bates, 1998). 홍계옥(2001)은 유아의 기질 중 접근-회피성, 지구력, 적응성은 사교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접근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유능함을 나타냄을 밝혔으며, 서수경(199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적응성이었고, 정서성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정현희, 최경순, 2001), 적응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혜정, 구현아, 2006).

유아들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김민아, 이재신, 2004; 원영미, 1990;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적응(김현미, 도현심, 2004; 김혜진, 2003; 문혜련, 1999; 유우영, 이숙,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기질(김기현, 조복희, 2000; 남혜순, 2003; 조용신, 정영숙, 2000; 최형성, 2005; 한세영, 1996; 허영림, 윤혜진, 2002) 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들이다. 즉, 유아의 다른 변인들과 유아의 기질,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적응관계에 대한 탐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아들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아 자신의 특성인 기질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기질 특성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주고, 부모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았다.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또한 유아의 스트레스 환경이 되어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이처럼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연결은 상당히 복잡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따라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유아들은 그들이 가진 기질 특성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 유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은 매우 중요한 정서지대로서 유아들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유아의 개인적이 특질인 기질 요인은 가장 밀접한 가족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요인과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음으로 가지는 사회적 경험인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적응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한 연구는 Coplan *et al.*(2003)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며, 국내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밝혀진 결과는 유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며 조화롭고 효율적인 양육을 위한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기질 및 유아

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 안양과 부산에 위치한 유아교육·보육기관 6곳에 다니는 3~5세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기질은 각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 16명이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300부이며, 회수된 질문지는 총 268부로 이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4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아가 140명(55.1%), 여아가 114명(44.9%)이었으며, 연령은 3세아 48명(18.9%), 4세아가 101명(39.8%), 5세아가 254명(41.3%)으로 평균연령은 4.22세($SD=.74$)였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외동아가 65명(25.3%), 첫째아가 88명(34.6%), 둘째아가 89명(35%), 셋째 이하가 12명(4.7%)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유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78($SD=3.17$)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90명(35.4%), 대졸이 153명(60.2%), 대학원 이상이 11명(4.3%)이었다. 어머니는 전일제 취업이 94명(37.0%), 시간제 취업이 14명(5.5%), 전업주부가 146명(57.5%)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기술직이 143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221명(87.0%)이었고, 비핵가족이 33명(13.0%)으로 나타났다. 가정총수입은 200만원 이하 65명(25.6%), 201만원-300만원이 84명(33.1%), 301만원-400만원이 56명(22.0%), 400만원 이상이 49명(19.3%)이었다.

B.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PDH)를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Likert 식 5점 척도로 '전혀 성가시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그리고 '매우 성가시다'는 5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의 자녀양육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PDH에서 양육은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요인은 양육에 관련된 과제(Parenting Tasks; PDH-PT)로 일반적으로 양육과 관련된 전형적인 의무나 과제와 관련된 요인들이다. 예를 들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한다." 등이다. 또한 두 번째 요인은 유아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요인(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 PDH-CB)으로 예를 들면, "아이는 잠자리에 들 때 자지 않으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도구의 문항수 및 신뢰도

척도	문항수	신뢰도
유아의 기질	25문항	.79
사회성	5문항	.89
정서성	5문항	.69
활동성	5문항	.80
주의집중	5문항	.71
진정성	5문항	.60
스트레스	13문항	.85
PDH-PT	7문항	.76
PDH-CB	6문항	.73
사회적 적응	30문항	.86
친사회적행동	10문항	.86
불안-위축행동	10문항	.83
분노-공격행동	10문항	.86

PDH-PT: 양육과제로 인한 스트레스
 PDH-CB: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Thomas 와 Chess(1969, 1977)의 9가지 기질적 특성과 Buss와 Plomin(1975)이 식별한 3가지 기질 차원을 통합하여 Plomin과 Row(1977)가 개발하고, Jewsuwan, Luster 및 Kostelnik(1993)이 수정한 'Colorado Childhood Temperament Inventory(CCTI)'를 정영미(1996)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영미는 이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문장 및 어휘, 단어의 적절성을 위해 아동학 전공교수 1인과 현장 교사 5명을 통해 안면타당도를 검토한 바 있다.

CCTI의 문항은 5개 하위 영역(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그리고 진정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성은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측면을 가리키며, 정서성은 감정 표현에 있어 반응의 강도를 나타내며, 활동성은 전체적인 활동량을 의미하고, 주의 집중은 한 가지 활동에 얼마나 오랫동안 몰두하는가를 뜻하며, 진정성은 격한 감정에서 쉽게 진정되는 경향을 뜻한다.

이 도구는 어머니가 평가하며, 어머니는 각 문항별 정도에 따라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표 1〉과 같다.

3. 사회적 적응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LaFrenier와 Dumas(1996)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Social

〈표 2〉 연구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54)

변인		평균	표준편차
유아의 기질	사회성	3.28	.77
	정서성	3.09	.62
	활동성	3.52	.68
	주의집중	3.31	.57
	진정성	3.32	.49
양육스트레스	PDH-PT	2.18	.57
	PDH-CB	2.31	.61
	전체	2.25	.54
유아의 사회적 적응	친사회적행동	3.58	.52
	불안-위축행동	2.27	.54
	분노-공격행동	2.19	.62
	전체	3.71	.42

PDH-PT: 양육과제로 인한 스트레스
 PDH-CB: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SCBE) 간편형을 번역한 권연희(2003)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를 사용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유아가 보인 행동을 근거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C.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유아의 기질은 활동성($M=3.52, SD=.68$)이 다른 기질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성($M=3.09, SD=.62$)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전체 평균 2.25($SD=.54$)로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중간 수준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적응은 1~5점의 가능한 범위 중 총점에 대한 평균은 불안-위축

〈표 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N=254)

	PDH-PT	PDH-CB
사회성	-.07	-.10
정서성	-.12	-.21**
활동성	-.13*	-.03
주의집중	-.23***	-.24***
진정성	-.27***	-.40***

* $p < .05$ ** $p < .01$ *** $p < .001$

PDH-PT: 양육과제로 인한 스트레스

PDH-CB: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표 4〉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과의 상관관계 (N=254)

		친사회적 행동	불안-위축행동	분노-공격행동
기 질	사회성	-.00	-.35***	.33***
	정서성	.02	-.12	-.02
	활동성	-.04	-.23***	.33***
	주의집중	.10	-.04	-.02
	진정성	.09	-.14*	-.03

* $p < .05$ *** $p < .001$

〈표 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적응과의 상관관계 (N=254)

		친사회적 행동	불안-위축행동	분노-공격행동
스트레스	PDH-PT	-.08	.08	.01
	PDH-CB	-.14*	.13*	.09

* $p < .05$

PDH-PT: 양육과제로 인한 스트레스

PDH-CB: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된 행동 과 분노-공격적 행동에 대한 점수를 역채점하여 계산한 것으로 3.71로 나타나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A.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과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아의 활동성($r = -.13, p < .05$), 주의집중($r = -.23, p < .001$), 진정성($r = -.27, p < .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아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서성($r = -.21, p < .01$), 주의집중($r = -.24, p < .001$), 진정성($r = -.40,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주의집중을 잘 못하며 달래기 힘들고 활동성이 적을수록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가 양육과제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주의집중을 잘 못하고 달래기

힘든 유아들일수록, 또 정서성이 낮을수록 유아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회성 기질은 불안-위축행동($r = -.35,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분노-공격행동($r = .33,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고, 활동성 기질은 불안-위축행동($r = -.12, p < .001$)과 부적으로, 분노-공격행동($r = .33, p < .001$)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정성 기질은 불안-위축행동($r = -.14, p < .0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사회성과 활동성이 낮고 진정성이 낮아 달래기가 어려운 유아들은 불안-위축 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사회성이 높고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은 분노-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C.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적응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PDH-CB)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r = -.14, p < .05$)과 부적 유의미한 상관관계, 유아의 불안-위축행동($r = .13, p < .05$)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유아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의 자녀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였고, 유아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내적 부적응인 불안-위축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D.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친사회적 행동, 불안-위축행동, 분노-공격행동의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어떠한 변인도 유의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불안-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유아의 기질 변인 중 사회성($\beta = -.29, p < .001$)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은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가 사회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유아들은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불안-위축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설명력은 14%였다.

분노-공격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사회성($\beta = .28, p < .001$), 활동성($\beta = .21, p < .01$) 기질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

〈표 6〉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N=254)

독립변인	친사회적 행동		불안-위축행동		분노-공격행동	
	B	β	B	β	B	β
사회성	.00	.00	-.20	-.29***	.22	.28***
정서성	-.01	-.01	-.01	-.01	-.09	-.09
활동성	-.04	-.06	-.07	-.09	.19	.21**
주의집중	.08	.08	.01	.01	-.04	-.04
진정성	.06	.05	-.08	-.07	-.04	-.04
PDH-PT	.03	.04	-.03	-.03	-.07	-.07
PDH-CB	-.11	-.13	.07	.08	-.13	-.13
R ²	.03		.14		.18	
F	1.14		5.72***		7.53***	

* $p < .05$ ** $p < .01$ *** $p < .001$

PDH-PT: 양육과제로 인한 스트레스

PDH-CB: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타내지 않았다. 즉,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사회성이 높고 활동성이 높다고 지각한 유아들은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분노-공격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변량은 분노 공격행동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를 요약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의집중, 진정성, 정서성,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기질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들 기질 요인들은 모두 부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낮아 달래기 어려운 유아들의 어머니들일수록, 또 정서성이 낮아서 부정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수록 어머니가 도전적 행동(예: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주의집중이 안되고, 달래기 어려우며, 비활동적으로 느리게 행동할수록 부모의 양육과제로 인한 스트레스(예: 아이의 스케줄 때문에 내 일이나 가정 일에 지장이 온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plan *et al.*(2003)의 연구에서 부주의, 부정적 정서가 도전적인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하지만, 부모의 양육과제로 인

한 스트레스와는 상관이 없이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Copla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을 부정적 정서, 부주의, 수줍음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 특성만을 측정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 활동성 기질이 양육과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지각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남혜순, 2003; 조용신, 정명숙, 2000)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어린 유아들임을 감안해 볼 때 주의집중이 안될 때, 달래기 어려운 기질을 가진 유아들일 경우 뿐 아니라 활동이 적어 더딘 발달을 보인다고 생각될 때, 자녀를 키우는 양육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성, 활동성과 진정성 기질이 불안-위축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성과, 활동성 기질은 분노-공격행동과는 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성이 낮고 비활동적이며 달래기 어려운 유아들일수록 불안-위축적인 행동을 보인 반면, 사회성이 높고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일수록 분노-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적응을 예언하는 요인으로 사회성(원영미, 1990)과 활동성(김영희, 1996)을 변인으로 본 것과 일치하며, 적응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이 기질들이 너무 높았을 경우 오히려 문제행동을 많이 보여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김 연 외 5인, 2006; 최경순, 1994; 홍계옥, 2001)들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활동적이며 반응적일 때 부모나 교사 그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아

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보고한 김민아, 이재신(2004)의 연구결과와 활동성이 높은 유아가 집단생활에서 적응성이 높다는 Parker-Cohen과 Bell(198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 표출, 충동과 감정 통제부족이 공격 행동으로 나타나며 불안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Fagan(1990)의 연구와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정현희, 최경순(2001)의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과 정서성이 관계가 있으며 사회성과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니 위 연구들에서의 다른 연령에 서로 다른 기질 측정 도구로 측정된 기질 특성이므로 동일한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성 기질에 대해 어머니는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으로 본 반면 교사들은 사회성 기질이 높은 유아들이 외현적 부적응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평가하였는데(한세영, 1996), 본 연구에서 기질은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나 사회적 적응을 교사가 평정한 데서, 어머니가 사회성이 높다고 평정한 유아들을 교실에서 교사들은 보다 외현적인 부적응 행동의 표출이 많은 것으로 지각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은 외적인 부적응 행동인 분노-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내므로 항상 교사나 성인의 주의를 끌게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동반하는 반면, 사회성과 활동성이 낮은 유아들은 내적인 부적응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낮은 사회성이 말없는 행동과 같은 혼자놀이와 수동적 혼자놀이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김민정, 엄정애, 2005; 조은옥, 2003; Coplan & Rubin, 1998)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낮은 사회성과 낮은 활동성은 대인관계와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소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불안-위축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적인 부적응 행동은 수줍음, 고립, 위축과 같은 현상으로 왕따와 같은 학교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진정성이 불안-위축행동과의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달래기 어려운 기질을 가진 유아들이 가정을 떠나 새로운 환경인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불안-위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는 유아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친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 불안-위축 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유아들의 적응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반면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려하지 않거나 바닥을 뒹구는 행동과 같이 어머니를 지치게 하는 도전적 행동으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정적

인 정서지대를 유발하게 되므로 유아들은 친사회적행동을 적게 하며, 불안-위축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Crnic과 Booth(1991)에 의하면 30개월 이후의 아기 부모들이 어린 영아들의 부모들 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더 강하게 느끼는데, 유아기에 유아의 자율성 증대로 인해 부모에 대한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부모의 스트레스 지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으며(김혜진, 2003; 문혜련, 1999),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부적응행동, 공격성, 불안 및 과잉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김현미, 도현심, 2004; 이정희, 2000)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스트레스 중 특별히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스트레스만이 유아들의 사회적 적응 항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Coplan *et al.*(200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갖게 되는 양육스트레스보다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 유아행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나타낸다.

넷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 본 결과 사회성 기질이 불안-위축 행동과 분노-공격 행동을 예측하였으며, 활동성 기질이 분노-공격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들은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기질차원에서도 사회성과 활동성만이 적응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성 기질이 불안-위축행동을 14% 설명하였으며, 사회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이 분노-공격행동을 18% 예측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인 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유아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가정 외에 최초로 접하는 사회인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적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본래 유아가 타고난 기질과 유아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정서지대인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다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적응이 여러 가지 다른 변인들과의 복합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유아의 사회성, 활동성 진정성 기질은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상관이 있으며, 주의집중, 진정성, 정서성, 활동성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요인이었으며, 어머니의 유아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과 내면적 부적응 행동인 불안-위축 행동과 상관있는 요인이었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성과 활동성 기질이였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이 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 세심한 유의를 기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에 살고 있는 3~5세 유아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주요 변인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양한 대상이 아닌 평균 이하($M=2.25$)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로 구성이 되었으므로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대변한다고 보기에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연구의 대상이 환경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린 유아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단순히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교사 보고에 의해서만 측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상 유아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감안할 때 많은 유아들에 대한 적응을 한 명의 교사에만 의존해서 측정하는 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행동 관찰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정서지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현대 사회의 핵가족, 소자녀의 현상으로 보아 아버지의 영향이 지대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탐구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만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이후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가족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연결, 그리고 유아의 행동에 대한 부모 행동으로부터 가족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이르는 다양한 경험적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민정(1997).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유치원 부적응 행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기현, 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한국아동학회지, 21(4), 35-50.
 김민아, 이재신(2004). 어머니의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

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45-166.
 김민정, 엄정애(2005). 유아의 혼자 놀이와 기질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1-14.
 김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혜정, 구현아(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29-250.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32.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김혜진(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수경(200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선희(2002).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유치원 적응.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163-180.
 여성가족부(2006). 통계자료.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이정희(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진숙(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47-61.
 정영미(1996). 유아의 기질과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현희, 최경순(2001).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14.
 조용신, 정영숙(200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학회지, 9(3), 271-281.
 조은옥(2003).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성향과 놀이행동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순(1994).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관련변인. 부산여자대학

- 교 논문집, 38, 263-291.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한민경(200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정서이해 능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영림, 윤혜진(200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4), 85-101.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5.
- Coplan, R. J., & Rubin, K. H.(1998). Exploring and Assessing Nonsocial Play in the Preschool: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 *Social Development*, 7(1), 71-91.
- Cowen, E., Work, W., Wyman, P., Parker, G., Wannon, M., & Gribble, P. (1992). Test comparisons among stress-affected, stress-resilient, and nonclassified fourth-through sixth-grade urban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00-214.
- Creasey, G., & Reese, M. (1996).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parenting hassles: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symptoms, nonparenting hassle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93-406.
- Cr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3,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Fagan, J.(1990). The intervention between child's sex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behavior problem of preschool-age child in day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59, 1-9.
- Goldsmith, H. H., Buss, A., Plomin, R., Rothbart, M. K., Thomas, A., Chess, S., Hinde, R. A., & McCall, R. B.(1987).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 505-529.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3-51.
- Kliewer, W., & Kung, E. (1998). Family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hassles and behavior problems in inner-city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278-292.
- Parker-Cohen, N. Y., & Bell, R. Q.(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Oe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615-625.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Damon(Ed.) & N.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vol. e):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Harpercollins.

(2007년 6월 30일 접수, 2007년 9월 15일 채택)